월요광장

예술로 광주를 물들이자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며칠 전 문화재단 지인 부부와 식사 자리가 있었다. 그때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건축과 예술이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광주시가 아트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며 건축과 예술의 관계, 도시에서 예술의 역할과 건축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건축과 예술이 협업하는 일은 흔하다. 우리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학동 아이파크의 외벽 색채도 예술이 접목된 사례이고, 규모를 떠나 건축 자체가 예술이 되어 도시 전체 브랜드를 변화시키고 결정짓는 사례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 등등 많은 사례가 있다.

예술의 도시라 불리는 세계적인 도시들은 환상적인 공공 예술작품,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 또는 급성장하는 거리 예술 현장이든 간에,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이 도시들은 예술 애호가 뿐 아니라 타 도시들에게도 동경의 대상이 된다.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와 낭만이 깃든 도시 등 다양한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는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과 잘츠부르크, 체코 프라하,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영국의 런던 등과 같은 도시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세계적인 예술작품의 소장, 도시 건축이나 장소의 예술적 가치로 인해 예술의 도시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방치되어 있던 발전소를 세계 최고의 현대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같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도시를 예술과 문화로 브랜드화 하기도 한다.

광주시도 과거 압축성장 도시개발로 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 부재, 건축 및 도시 디자인 등에서 문화중심 도시로서의 방향성 부재 등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광주 폴리와 아트도시 광주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통해 한 단계 도약을 꾀하였다. 톨게이트에서부터 미디어아트 형태의 관문형 폴리가 문화 풍경이 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광주 폴리들은 도심 공동화를 경험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에 문화적 힘을 전달하여 도심재생에 힘을 더하고 있다.

또한 현재 눈에 보일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트도시 광주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잘 시행된다면 광주가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아트도시 광주 정책에 벤치마킹 되었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은 1988년 물질뿐 아니라 마음의 풍부함도 요구되는 시대에 기능성만을 추구하는 건축에서 디자인도 고려된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시작되었다.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어 질 높은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지역 문화를 향상시켜 세계적인 구마모토를 만든다는 목표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공공영구 임대아파트였다. 영세민들에게 주거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가장 취약한 곳부터 디자인을 쇄신하고자 했던 전문가 의견 등이 그 배경이 됐다. 공공영구 임대아파트가 주거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좁은 공간에 다수를 수용하던 방식도 과감히 개선했다.

이는 현재 광주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주택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비슷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공모 프로젝트와 도시공사의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 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이나 공간의 개보수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주거 복지를 넘어 공간 복지로의 발전을 꾀하는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함께 재생 사업지구 내 다양한 프로젝트와의 협업, 그리고 지자체의 공공개발 사업과의 협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도심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공간들까지도 예술로 물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광주 폴리, 아트도시 광주와 같은 사업들과 함께 도심 곳곳이 예술로 물든 '예술 광주'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수필의 향기

꽃씨를 뿌리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바람이 제법 보드랍다. 땅도 흙내를 풍긴다. 지난가을 받은 꽃씨를 들고 나선다. 땅이 씨앗을 받으려는지 축축하다.

수많은 꽃이 나를 울리거나 웃게 했다. 행복한 날들은 늘 꽃이 함께 왔거나 같이 있었다. 어떤 꽃은 입학하거나 승진할 때 있었고, 어떤 꽃은 연인의 머리에 꽂아주며 고백할 때 함께했다. 어떤 꽃은 꽃잎째 먹기도 했고, 또 어떤 꽃은 벌과 나비가 모은 꿀로 달콤하게 왔다. 하늘하늘 떨어지는 꽃을 보며 울기도 했고, 가슴에 꽃을 꽂아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어떤 꽃은 신에게 바치며 간절한 소망을 기원했고, 어떤 꽃은 소중한 이가 하직할 때 바치며 평안을 간구하기도 했다.

꽃은 삶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에 이렇게 늘 중요한 마음의 표식으로 나를 대신했고, 상대의 마음 역시 말 대신 꽃으로 받기도 했다.

꽃은 사시사철 한시도 끊이지 않고 부지런히 피고 졌다. 그런 꽃을 보며, 기뻐하고 감탄하면서도 난 정작 여태 꽃을 심을 줄 몰랐던 것 같다. 그토록 좋아하면서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다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고도 전해 주지 않는 것과 같다던데, 난 이리 여태껏 어리석게 산 모양이다.

돌이켜보니 꽃을 전혀 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릴 적 농사를 지었는데, 매년 논밭에 피는 꽃을 보면 내가 그토록 힘들게 봄에 모내기하고 겨울에 보리를 뿌렸던 일들이 꽃을 심는 일이었다. 무와 장다리, 파와 고구마에서도 꽃이 피고, 소나기를 흠뻑 맞아가며 심은 토란과 감자도 꽃이 피었다. 나락과 보리도 무덕무덕 꽃을 피웠다. 근데, 화려하지 않아서인지 시골 아낙을 닮아 수줍게 피어서인지 그 꽃을 유심히 본 적이 드물다. 이미 꽃보다 열매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콩깍지가 낀 내 눈에 꽃이 꽃으로 보였을 리 만무하다.

이제야 어느 구석에 몰래 핀 꽃에 시선을 준다. 귀여운 아이를 보듯 눈으로 여기저기 어루만진다. 해바라기나 장미같이 큰 꽃이나 진달래나 목련처럼 화사하게 핀 꽃이 아니라도 이제는 봄까치꽃 노루귀처럼 작거나 미나리아재비, 꿩의다리와 같이 이름조차 생소한 꽃들에도 몸을 낮춘다.

열매를 바라지 않으니, 비로소 꽃이 보인다. 목적 없이 대했을 때,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꽃도 꽃으로만 보았을 때 더 아름답다.

꽃이 떨어진다. 꽃은 때가 되면 기꺼이 바람에 자신을 던진다. 꽃이 머문 자리에는 새가 떠난 자리에 하얀 알이 있는 양, 작은 열매가 맺혀 있다.

꽃씨 뿌릴 곳을 찾는다. 씨앗을 뿌려 본 이들은 안다. 그럴 만한 장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무턱대고 뿌린다고 자랄 씨앗도 아니란 걸. 꽃씨를 뿌린다. 연애편지를 쓰듯 또박또박 그렇게 꼼꼼히 뿌린다. 새싹으로 답장이 오길 고대하며 쓰는 편지는 인연의 씨앗, 곧 나와 꽃, 꽃과 세상의 각별한 인연의 시작점이다. 인(因)은 씨앗이고 연(烟)은 비와 바람, 흙과 기온 같은 것이라는데, 아름다운 연을 위해 바닥도 곱게 파고, 두엄도 주고 고운 흙으로 이불 덮듯 사부자기 덮는다. 적절한 비와 햇빛이 보살펴 줄 것이다. 우주가 힘을 합치지 않고는 한 송이도 피어나지 않는다니, 내가 심었기보다 비와 바람이 깨우고 햇볕이 키우리라. 어느 시인의 말처럼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는 견뎌야 필 게다.

우주에 생명을 뿌리는 지금 내 가슴은 두근두근 뛴다. 어떤 빛깔의 꽃이 필까. 어떤 향을 낼까. 꽃씨를 뿌린 날부터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지루할 날들이 없다. 행여 목이 마를까, 너무 더울까, 혹여 천둥에 놀라지 않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설렘으로 꽃씨를 뿌린다. 희망을 뿌린다. 내 가슴이 황량하지 않도록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중이다.

기 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민간공원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주말이 되면 가족과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자주 걷는다. 매주 만나는 공간이지만 받는 느낌이나 모습은 매번 다르다. 적막함에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머물다가, 문득 낙엽 속에서 살포시 고개 드는 새싹이 보이기도 하고 비 내리는 봄날 단풍나무 새순에 맺힌 빗방울의 영롱함에 새삼 놀라기도 한다. 때론 무심코 튀어나온 그루터기, 돌덩이도 반갑다.

날씨가 풀린 탓인지 많은 시민들이 산보를 즐기거나 볕이 드는 벤치에 앉아 가족이나 지인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람 간의 만남을 줄이도록 강제당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심신을 달래고 위안을 삼을 곳이 많지 않아 더 반가운 곳이 공원이 아닐까 한다.

요즘 전국 많은 자치단체에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공원 내 일부 면적에 아파트 등을 짓고,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공원 부지를 매입해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도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재정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의 매입비와 조성 사업비 2조 8000억 원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면 굳이 힘들게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공원 내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의 많은 요구에도 공원 대부분이 사유지(일몰제 대상 공원의 81%가 사유지)로 구성돼 있어 벤치·산책로와 같은 주민 편의 공원시설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 공원 내 사유지에 각종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쌓이기도 하고, 이름은 공원이지만 사실상 논밭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공원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설치한 철조망 등으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유지인 공원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광주시가 이전받게 되면 시민의 요구에 따른 각종 대응이 가능해진다. 우선, 창고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미관을 크게 해쳐온 훼손지는 지역에 적합한 수종의 수목을 식재할 예정이다. 일부 공원에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장이나 애견 놀이터, 그라운드 골프 전용 구장이 들어선다. 또한 공원 주변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일상 쉼터로서 공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원 내 묘지를 이장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외공원 내 송전탑 철거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부지는 9개 공원 내 사유지 및 국·공유지 593만 2000㎡에 이르며 토지 보상비만 1조 2000억 원이다. 훼손지 내 수목 식재, 캠핑장, 애견 놀이터, 산책로 조성 등 공원 사업에는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은 시민의 세금인 광주시 예산이 아닌 공원 내 건립되는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광주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협약서에 초과 수익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국 민간공원 조성 사업 중 공원 확보 비율도 가장 높게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실제 전국 76개 자치단체 평균 공원 확보 비율은 약 80%지만, 광주시는 90.3%에 이른다. 이마저도 용적률이 높은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을 허용한 다른 광역시와 달리 광주시는 비공원 시설 부지를 용적률이 낮은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20%)으로 제한했음에도,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 면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다시 말해 아파트 건설 부지는 최소화하고, 공원 면적은 최대한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 민간공원 담당 실무자들은 이 같은 성과 때문에 오히려 일부 타 자치단체 민간공원 담당자들로부터 볼멘 하소연을 자주 받고 있다.

주 내용은 자치단체 의원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광주시는 공원 내 10%도 안되는 협소한 부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원의 90% 이상을 온전히 확보하는 데 왜 우리 지역은 공원 내 아파트 건립 면적 비율이 20~30%나 되느냐" "왜 광주시처럼 미리 민간업체와의 협약서에 초과 수익 환수 제도를 두지 못했냐"는 등의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원 일몰제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 지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치단체가 공원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행히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책로·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정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공원 조성 사업에 시민의 애정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社 說

윤 당선인 '국제민주인권도시' 조성 기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광주를 방문해 "광주는 자유·민주·인권의 수도"라며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해 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민주화 상징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5·18 현안들을 국정 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5·18 정책 연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 5·18 정책들을 다듬고, 국정 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8만 9821㎡)에 국가사업으로 5·18 역사체험·전시 및 국제 인권도시 교류·교육 공간인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해 달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 정신을 인류와 공유·연대할 수 있도록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5·18 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 확충 등도 함께 요청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런 만큼 과거 국민의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5·18 관련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은 다양한 학술 및 연구·교육 사업을 통해 5·18의 가치를 확인하고 숭고한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18 현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일상 회복' 여는 마지막 거리 두기 되길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폭 완화한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기존 여덟 명에서 열 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2월 18일 이후 네 번째로 '점진적 방역 완화'를 택한 데는 확진자 수 감소세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 두기 효과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2만 명으로 2주 전보다 20% 줄었다. 광주·전남 지역도 지난달 29일 2만 9763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31일 2만 1112명, 2일 1만 7439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특히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이르면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경우 지난 2020년 3월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여 만에 폐지되고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꾀하게 된다.

거리 두기 전면 해제의 관건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될 것이다. 확진자 수 감소에도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1300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연일 300~400명씩 쏟아지고 있다. 치료조차 못 받아 보고 사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한 병상 배정과 치료제 처방 등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높은 백신접종률과 낮은 치명률 등을 근거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은 2주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관리로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혐오

영화 '히든 피겨스'(2017년)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이다. 소련이 한발 앞서 우주인을 배출하자 미국은 부랴부랴 뛰어난 천재들을 국립항공우주국(NASA)으로 불러 모은다. 천부적인 수학 능력을 갖춘 캐서린 존슨을 비롯해 리더이자 프로그래머 도로시 본 등이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들은 모두 흑인 여성들로 온갖 차별을 받는데, 유색인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이들은 냉대에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영화 속 대사 가운데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처럼 이들은 실적으로 족쇄를 극복한다. 그러나 영화 배경이 됐던 1960년대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특정한 조건에 따라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맘충' '개저씨' 등 같은 신조어의 일반화는 혐오의 민낯을 보여준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대립이 '혐오' 논쟁으로 비화됐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주장한데 대해 전장연은 "이 대표가 시위 방식을 트집 잡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아울러 이 대표의 '혐오 발언'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갈라치기의 기저에는 '다름'이라는 편훼가 자리한다. 홍재희 영화감독이 쓴 '그건 혐오예요'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연민은 강자인 내가 약자인 그를, 가진 자인 내가 못 가진 자인 그를, 위에 있는 내가 아래에 있는 그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반면 공감은 그의 처지에 서서 그가 보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 이 대표는 정치 입문 초기만 해도 촉망받는 엘리트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일련의 논쟁은 공감 능력, 특히 약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에게 '타인의 처지에 서서 타인이 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정치인상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박성천 문화부 부국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